

성 차이가 언어 변이에 미치는 영향

김익환
(계명대학교)

Kim, Ikhwan. (2007). The effects of gender difference upon language variation. *Modern English Education*, 8(1), 56-72.

The study of language and gender is a relatively recent phenomenon, which has been significantly influenced by Feminism. The nonsexist language movement grew out of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of the 1970s, in opposition to sexist linguistic factors such as the generic "he" used in formal and written English and the generic "they" referring to singular antecedents in informal and spoken English. English has far more negative and 'insult' terms for women than for men. In language and gender studies, the focus on women's way of speaking is an effort to validate the dimension of women's language use that men often denigrate. The deficit, difference, and dominance theories are not mutually exclusive. All three views focus on accounting for women's language. All three emphasize a simple male-female opposition and downplay the real complexity of gender-based patterns of language use. Much emphasis is placed on how gender as a social construct affects language use.

Keywords: [feminism/nonsexist language/generic use/gender-based pattern/social construct/여권신장론/비차별성언어/총칭적 사용/성별 중심의 형태/사회적 관념]

1. 서론

성(gender)과 언어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정치운동으로 시작된 여권신장론(feminism)의 등장은 언어와 성의 연구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왔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남녀동권주의는 성차별을 나타내는 명사인 fireman이나 stewardess 그리고 성차별 대명사인 he를 각각 fire fighter, flight attendant와 he and she, s/he 로 대체시키게 되었다. 1970년대의 여권신장운동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일반 대중에게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 여성해방 운

김익환

등의 원리는 일반 미국인들에게 수용되어 고교 및 대학의 작문 시간과 여러 분야의 출판계에서 지침으로 활용된다.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어온 언어와 성별간의 연구에 의하면 성별은 남녀간의 차이라는 이분법적인 방법으로는 다룰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개념이다.

최근의 연구 동향은 여자와 남자가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 하는가 혹은 양성간의 차이점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주제 대신에 남·여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어떤 언어적 특성을 사용하며 특별한 상황에서 성별로 인한 차이점이 파생되는 이유의 규명에 중점을 둔다. 성별은 계층, 민족성 및 연령과 같은 사회적 요소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성별을 기본으로 한 언어차이는 사회 문화적 및 사회 심리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언어와 성차이의 개념을 단순히 남·여 간의 언어차이 보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성을 함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영어에 반영된 남존여비 사상,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차별적 요소를 논하고 주로 미국 영어와 연관 지워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통성 명사의 사용과 호칭 형태

남성대명사 he의 사용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통 규범문법 옹호자들은 he, his, him은 양성을 다 지칭하는 통성 대명사(epicene pronoun)로서 어떤 상황에서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학창시절에 규범 문법 교육을 받은 일반인들은 이 원리를 무시하라는 주장에 회의를 느끼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언어 사용 규칙을 권장하는 것에 대하여 일시적이고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총칭적 용법의 he가 언제 사용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그 용법이 “man”이 인류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와 상관관계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고대 영어에서 “man”은 실제 부인의 의미를 뜻하는 “wif”와 남자의 의미를 뜻하는 “wer” 혹은 “carl”의 양성을 가르키는 총칭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Frank & Anshen, 1983).

대명사 he와 관련된 형태인 his 혹은 him은 다음의 예에서처럼 성 중립적(sex neutral)인 것이라는 주장은 영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다.

If anybody reads this book, he will learn about dialects.

아래의 예에서처럼 단수의 의미로 쓰인 they가 초기 단계에서는 총칭적 남성 대명사를 지칭하는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If anybody reads this book, they will learn about dialects.

이러한 대응법은 규범 문법가들이 표준 규칙과 어법을 정하여 공포함으로써 해결되었다(Bodine, 1975).

통성대명사 he는 18세기 영국에서 규범문법의 전성기 시대에 의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성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그로부터 100년 후 영국의회에서는 he 대신 he or she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 후로 통성 대명사 he는 남녀를 공히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많은 미국인들은 영국의회의 법률 제정에 동조하고 있는 규범문법 학자들과 기술문법 학자들의 견해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여권신장론자들이 제시한 he 대신 she or he라는 표현은 언어선택과 그 선택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통성대명사가 무난하게 사용된 이유는 다른 비차별 언어 관행과는 다르게 문어체 스타일과 격식을 차린 상황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일상 대화에는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기존의 언어 습관을 대폭적으로 수정하라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통성대명사는 말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거나 편집하는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배워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격식을 갖춘 문어체 영어에서 총칭적 he의 규범적 용법은 회화체 영어에서 총칭적 용법 they가 단수 선행사를 지칭하는 어법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글에서 이 용법의 사용은 용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총칭적으로 사용되는 he의 용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지난 수 십 년간 저항에 부딪혀왔다. 총칭적 용법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he/man”이 결코 여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사용된 관례상 총칭적인 “he/man”을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남자와 연관시키는 경향이 많다.

nonsexist 대명사는 일상 대화체 영어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국영어 화자들은 다음 회화체 문장에서 “he” 보다는 “they”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Somebody left *their* book on the desk.

그러나 형식을 갖춘 글에서 *they*를 사용하여 한 개인을 나타내는 것은 규범적인 관점에서 보면 옳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규범주의자들은 *they*의 사용이 문법규칙에 위배되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제가 더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일부 여권신장 논자들은 심지어 형식적인 글에서도 *they*는 *he or she*와 더불어 영어의 초기 단계에도 사용된 바 있는 전통이 오래된 관행이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Miller (1994)의 실험 연구에 의하면 총칭적인 용법의 *he*가 사용되었을 때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독해력이 좋았으며 반면에 총칭적 *he*가 포함된 글에서 여자들은 이 글을 남자가 쓴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한다. Miller의 다른 실험에서 밝혀진 것은 여성들은 총칭적으로 사용된 *he*가 포함된 구인광고에서 여자들이 응하지 않은 이유는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94: 269).

남·여간의 권한의 차이를 나타내는 영어의 예는 언어에 사용되는 성씨(family name) 표기이다. Spender(1980: 24)는 “남편의 성을 여성이 채택하는 전통은 여성의 성은 중요하지 않으며 이러한 관행은 여성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서 벗어난 동성애자들이 남편, 아내, 배우자를 나타내는 말로 domestic partner, life partner, long-time companion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증권이나 법률 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용어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적으로 결혼은 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동거하는 아내나 남편은 common-law wife/husband로 명명된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존경받고 예우를 받는 호칭 형태가 있다. 예를 들면 sir는 격식을 차린 상황에서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호칭이나 유사한 직위에 속하는 여성들에게는 사용될 수 없고 대신 ma'am이라는 호칭이 사용된다. 여성들에게는 비격식적 용어인 dear, honey, sweetie가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나 이와 동일한 상황에서 여성들과 비슷한 지위의 남성들에게는 이런 호칭들이 사용되지 않는다.

3. 언어 변이성과 성차별 표현의 비교

3.1 언어 변이성

언어 변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주제중의 하나는 성별에 따라 언어가 어떻게 다르게 표출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언어 형태보다는 여성의 언어 유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왜냐하면 20년 전까지만 해도 남성의 말은 여성의 말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간주되어 왔다. 남·여간 말의 비교 분석에서 여성의 표현이 남성보다 체면과 위신을 더욱 의식하고 있다(Trudgill, 1972). 그 이유는 여성들이 친성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여성의 역할, 상대적 신분과 연관된 사회적 상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Trudgill(1983)은 여성들이 위신과 체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한다. 첫째 여성들은 자녀 양육을 통하여 문화를 전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예의바른 표준형의 언어를 물려 줄려는 의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다소 불안하기 때문으로 본다. 사회적 지위의 불안정으로 여성들은 언어를 통하여 사회적 신분을 알리고자 한다는 것이다. Trudgill이 제시한 마지막 이유로는 남·여간 직업상의 역할 차이를 들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은 그의 직업에 의해 평가를 받고 반면에 여성은 다소 외모에 의한 평가를 받는다고 본다. 예를 들면 여성은 남성보다 외모에 대하여 칭찬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체통 있는 언어 사용이 남자보다는 여자 쪽에 더 중요할 수 있다.

남성이 자신을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으로 규정하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여성보다 더 표현이 지나친 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비표준 언어 형태는 남성다움과 강인함을 상징한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남자들에 의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여성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강인함은 여성다움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어변이의 지역적 및 사회적 요인에 대한 초기의 양적 연구에서 성별은 생물학적 성과 유사한 단순하고 변치 않는 속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사회 계층 간의 차이가 언어 변이성에 미치는 영향이 성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크다고 인식된다. Labov(1990)는 성과 언어변이에 관한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 하나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보수적이고 표준 언어를 쓰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품격있는 표현뿐만 아니라 자체 공동체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언어형태

도 기꺼이 수용하며 혁신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말한다.

Wolfram(1969)의 조사에 의하면 남 여 간의 언어차이는 하류층이나 상류층보다 중산층 사람들 간에 그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이다.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현상은 중년층 화자들 간에 남 여 차이가 더 크다는 것과 그리고 심지어 가장 젊은 계층의 화자들 간에는 그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두 집단의 미국 흑인여성들 즉 한 집단은 집에서 가사 일을 주로 하는 여성들과 다른 집단은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전자는 흑인영어 방언과 연관된 특성을 지닌 말을 많이 사용하고 후자는 표준 미국영어 뿐만 아니라 유럽식 미국영어의 특성을 가진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Mallinson & Wolfram, 2002).

성차이(성별 difference)에 의한 언어사용은 지역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다. 성별은 특성이나 자질이 아닌 사용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성차이에 따른 언어사용은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혹은 일생의 어떤 시기에 변할 수도 있다. 언어와 성별연구는 두 가지 관점에 중점을 두고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특정 계층에 속하는 구성원들 간의 대화 형태를 자세히 조사하여 성차이에 의한 정체성(identity)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여성 대 남성 간에 사용되는 언어 변이의 형태를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2 성차별 표현의 비교

어떤 언어형태는 여성이 남성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통용되지만 그 반대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man and wife’는 가능하나 ‘woman and husband’는 가능하지 않다. ‘Marge’s husband’와 반대되는 ‘Walt’s wife’의 경우 흔히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호칭형태인데 소유자와 피소유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Eakins & Eakins, 1978). 등위접속 구조에서 여성명사 앞에 남성명사를 위치하게 하는 관행은(‘wife and husband’가 아니고 ‘husband and wife’ 혹은 ‘hostess and host’보다는 ‘host and hostess’) 남성이 우선시되는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7세기 중엽 규범 문법학자들의 글에서도 남성이 존재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항상 먼저 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남녀 간의 불평등한 역학관계나 존경의 정도 등이 영어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특별한 어휘에 포함된 의미상의 지칭 범위, 남 여가 짝을 이룬 어휘의 내포적 의미, 그리고 어구의 파생형태 등이 포함된다. ‘girl-boy’나 ‘woman-man’

에서처럼 항상 남성명사가 선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나이가 든 여성들을 'girls'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나이가 많은 남자들을 'boys'로 불리워 지는 경우는 없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30세 된 여성을 지칭하여 I met this real nice girl.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30세 된 남성을 가르켜 "I met this nice boy."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유형의 거의 모든 예에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성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TV 하나 운서들도 18세에서 22세 사이의 대학생들 간의 남 여 농구 선수권대회를 의미하는 경우에도 NCAA 'girls' basketball tournament' 라고 말하지만, NCAA 'boys' basketball tournament' 라고 말하지 않는다(Holmes & Meyerhoff, 2003).

남성과 여성 짝으로 구성된 어휘구에서도 여성명사는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의미를 지칭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mister/mistress', 'governor/ governess', 그리고 'bachelor/spinster', 'lady/lord', 'courtesan/courtier'에서 여성명사는 추종하거나 복종하는 의미를 나타내며 그리고 역할의 중요성이 낮다는 함축적 의미를 띄고 있다. 'mistress'는 부적절한 성행위를 일삼는다는 내포적 의미를 갖고 있다(Bucholtz, 2004).

남성명사에 접미사가 첨가되어 생성된 여성형 명사 'bachelorette'와 'poetess'는 존경심이나 중요성이 다소 뒤떨어진다는 함축적 의미가 있다. 접미사가 첨가되어 여성 고유명사가 된 경우, 예를 들면 'Carl'에서 'Carla'가 파생되었고 'Paul'에서 'Paulette'가 파생되었다는 사실은 남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Eckert, 2000).

Nilsen(1977)이 사전에 수록된 남·여를 각기 나타내는 단어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성표시 어휘가 여성표시 어휘보다 3배나 많으며 체면이나 위신과 관련된 남성표시 어휘는 여성표시 어휘보다 그 수가 6배에 달한다고 한다. 사회 관습상 남자와 여자에게 오랫동안 별개로 적용되어온 이중기준을 나타내는 특별 어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Stanley(1977)의 조사에 의하면 문란한 성적인 관계가 잦은 남자(예: animal, lech)를 기술하는 어휘는 20개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stud'와 'casanova'와 같은 단어는 원래는 부정적 의미였으나 최근에는 'stud'는 정력이 좋은 남자, 'casanova'는 애인을 많이 거느린 남자를 의미하게 되었다.

Stanley(1977)는 매춘부를 나타내는 whore, slut, tramp, tart 같은 단어는 영어에 그 수가 약 220개에 달한다고 말한다. 은유적 표현에서도 여성들을 먹을 수 있는 대상(예: peach, sugar, cheesecake)으로 분류되는데 반해 남성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Hines, 1999).

성에 근거한 불평등과 고정관념이 영어에 항존하고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언어표현을 달리하면 남·여 간의 불평등한 관계에 변화가 올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 평등성이 언어적 평등성에 선행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그에 대한 답으로 언어는 사회, 문화적 현상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즉, 만약 사회가 여성들을 불평등하게 다룬다면 언어는 그 사회의 차별적 근거를 나타내는 상징적 징표가 될 수 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성중립적 표현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지칭하는 경우와 연관되는 단어일 경우는 특히 의미상의 훼손을 겪게 된다. 한때는 “mistress”와 “governess”는 “mister”와 “governor”에 대하여 의미가 악화되지 않은 중립적 의미의 대응어였다.

성 중립적인 언어표현의 경우에도 기존의 남·여 간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chairperson”과 같은 복합어의 경우 -person은 총칭적 용법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여성을 지칭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남자의 경우는 여전히 “chairman”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Ms.의 경우는 여성을 나타내는 말로 Miss와 Mrs.를 대체하여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기가 좋은 명칭이다. 최근에 Ms. 칭호에 대한 개념과 태도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몇 년간 의도된 적은 없지만 특별한 의미가 연상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Ms.는 전문적 지식과 독립성 등과 같은 특성을 지닌 여성을 연상시킨다. 동시에 다소 냉정하고 사무적이며 현모양처가 될 가능성이 희박한 여성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므로 언어사용 형태를 바꾸어 말한다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언어적인 치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언어는 사회적 제도와 체제, 관습 등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언어라는 상징매체를 통하여 충실히 반영한다. 그러므로 언어가 사회적 불공평(inequity)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언어가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사용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수용을 강화시키고 영속화시킨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로 총칭적 용법의 he 대신 he or she를 사용하거나 Mrs.나 Miss에서 Ms.로 명칭을 바꾸어 부르는 언어개혁이 언어의 성편견을 의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 차이를 반영하는 수단으로서의 언어와 친교 및 사교의 도구로 사용되는 언어 사이에는 상호 의존성이 있다. 사회적 상황이 변하게 되면 언어사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언어개혁은 사실 사회 변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영어에서 성을 지칭하는 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개혁에 관하여 몇 가지 합의된 사항이 있다. Pauwels(2003)는 이미 영어사용 국가에서는 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 언어 정책이 공공부분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 여러 나라와 UNESCO와 같은 국제기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성차이가 언어 변이에 미치는 영향

있는 언어학자들의 모임인 미국 언어학회에서 채택한 비차별 정책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히 남자를 가르키는 경우가 아니면 남성 대명사나 man과 같은 준 총칭형 보다는 가능하면 복수형인 people이나 they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어느 한쪽 성만 부정확하게 지칭하는 총칭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
3. 가능하면 성에 관한 고정관념을 암시하지 않는 server, professor, nurse와 같은 성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위에서 제시된 지침은 널리 수용되고 있지만 많은 언어학자들이 비차별적 언어 사용을 확고히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 언어사용에 대한 세 가지 이론

언어와 성관계를 연구해온 많은 연구가들은 음운론적 및 통사적 특성보다는 화용론적인 문제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이 장에서는 결손, 차이 그리고 지배 이론의 세 관점을 고찰해 본다. 세 가지 이론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공통적인 주안점인 여성의 언어사용 및 여성언어의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4.1 결손이론(Deficit Theory)

결손이론은 1920년대 초에 덴마크의 언어학자인 Jespersen에 의하여 제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세계 여러 문화권에 속하는 여성의 말의 형태는 남성과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생물학적 구조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그가 주목한 여성의 말의 특성은 남성보다 알고 있는 어휘의 수가 적으며, 문장구조가 간단하며 사전에 생각없이 말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말은 남성의 말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초기의 몇몇 여권 신장론자들은 여성의 말은 열등하고 생물학적 성의 차이에 기인하다는 주장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Jespersen의 주장은 그 당시 남성우위 사상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언어학 분야에서 거의 50년동안 도전을 받지 않았다.

그가 주장한 근거는 현실세계에 의거한 관찰에 근거하지 않고 예술이나 문학세

계에서 묘사된 여성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서 여성 언어에 대한 연구는 Lakoff(1975)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연구는 여성언어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점은 있으나 몇가지 점에서 비난을 받아 왔다.

Jespersen과 마찬가지로 Lakoff도 여성의 말을 남성의 말과 비교하여 다소 미흡하다고 간주한다. 그도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경험상의 증거에 의하기 보다는 문학 작품, 대략적인 관찰, 자신이 쓰는 언어형태의 검증등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Jespersen과는 달리 Lakoff는 여성에 심정적인 동조를 하고 여성의 미비한 말의 형태는 생물학적, 심리적 결손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상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본다.

Lakoff(1975)는 여성들은 자신의 의견을 공손하고 잠정적이며 간접적인 화법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나타낸다고 말한다. Lakoff가 언급한 여성언어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부가의문문(tag question)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부가의문문은 서술문의 내용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화자측의 자신감 부족 혹은 개인의 견해나 주장이 확실하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둘째 여성들은 서술문을 내림조 억양대신 의문문에 사용되는 올림조 억양을 사용하여 끝을 맺는다. 올림조 억양을 사용함으로써 발화내용의 정도성에 여운을 남긴다. 마지막으로 Lakoff는 여성들은 직접적인 명령보다는 요청 형식의 지시나 명령을 더 선호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Shut the door?"보다는 "Would you mind shutting the door?"라고 말할 가능성이 더 크다. Lakoff는 명령문 형식의 지시보다는 요청이나 요구가 덜 권위적이라고 주장한다.

Lakoff의 논의는 그 당시 상당한 영향을 미쳐 여성언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성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그녀의 견해에 찬·반 양논이 대두하게 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남성이 여성보다 부가의문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그 후 몇몇 학자들이 Lakoff가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함에도 지나치게 일반화를 시도한 점을 비판했다. Lakoff 자신은 모든 여성들이 여성언어의 특성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자기의 주장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연구에 출발점이 된다고 언급했다. Lakoff의 내성적 방법은 사회언어학 영역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형식 언어학의 초기 단계에는 적절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Lakoff 연구의 한계점은 여성언어의 특성에는 항상 연약함(weakness)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연약함이란 말에 설득력과 박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성의 언어가 항상 나약하고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드러운 지시는 어떤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어떤 상황에는 정중함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

고 다른 상황에서는 적대감이나 거리감을 나타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화자가 친한 친구와 대화도중 갑자기 최상의 공손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화가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의 의미는 그것이 사용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말을 많이 한다거나 혹은 남성이 여성보다 말을 더 많이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남·여의 대화의 양은 대화의 주제나 상황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다르고 대화를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남·여 간의 대화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다른 고정관념은 남자가 여자보다 대화도중 차단(interruption)을 더 많이 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남자가 여자보다 사회적 권위와 말의 권위가 더 크고 대화의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후의 많은 실험 연구에서 어느 한쪽이 차단을 많이 한다거나 혹은 다른 한 쪽이 차단을 더 많이 한다는 상반된 결과에 대하여 차단의 정도에 대하여 뚜렷한 차이는 없다(James & Claske, 1993).

차단의 횟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차단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화도중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표현되는 “그렇지”, “그래”, “아...” 등의 반응은 차단으로 간주되지만 대화의 진행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화의 흐름에 분명히 방해가 되는 발화일지라도 대화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과 거의 관계가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대화 중간에 “불이야!”라고 소리쳤을 때 그것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우리의 안전을 염려하여 말한 경고로 해석하게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어떤 사람이 상황 설명 도중에 “Oh! Now I get it.”를 말했다면 설명을 방해하기 위한 부정적인 시도라기보다는 무엇을 갑자기 이해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게 된다. 소위 부드러운 언어표현의 특성이 항상 연약함을 전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화 차단이 주도권을 잡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월적인 사회적 신분과 차단 간에는 명확한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4.2 문화적 차이 이론(Cultural Difference Theory)

여성의 언어가 남성의 언어보다 뒤떨어진다는 견해에 대한 반론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여성의 언어는 열등한 것이 아니고 단지 표현이 다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문화적 차이 이론에 의하면 여자와 남자의 언어가 다른 것은 어릴 때부터 소

년·소녀들은 서로 다른 또래 집단속의 언어공동체에서 살아 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접근법을 주창한 사람은 사회언어학자인 Tannen(1993)이다. Tannen은 남·여 간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잦은 오해는 개인간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시키는데 있어서 대화의 역할에 관한 기대치가 틀릴 뿐만 아니라 대화가 진행되는 방법에 관하여 남·여가 각각 다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차이점은 소년·소녀들이 개인간의 대화 규칙을 별도의 집단을 형성하여 지내면서 배우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본다.

소녀들은 협동, 평등, 돈독한 우정을 중시하는 집단의 분위기속에서 성장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협조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서로 격려해주고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호간에 다른 내용을 첨가하여 의사소통을 진행시킨다. 게다가 소녀들은 상대의 느낌이나 미묘한 감정을 잘 읽어낸다. 왜냐하면 우정을 돈독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년들은 행동특성상 위계질서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선호하는 집단분위기 속에서 자라난다. 그러므로 소년들에게는 협동적이기 보다는 경쟁적이고 타인을 격려해주기 보다는 말을 통하여 권위를 세우는 대화스타일을 개발한다. 청소년기에 배운 이러한 대화상의 차이는 그 후 어른이 되어도 그대로 전이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남·여가 함께 참여한 대화에서 한 남자가 무례하게 대화를 차단하거나 자기 차례에서 너무 오래 말을 하여 대화를 지배한다면 여자는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관계로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Tannen(1990)의 주장에 의하면 남자는 대화란 동일한 기회가 주어질 때 상호협력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경쟁을 통한 시합으로 보기 때문에 여성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 할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하게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단순한 사실적 진술이면의 함축된 의미를 찾아내는데 익숙하다는 점이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간단한 진술이 시사하는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한 여성이 자기 남편에게 “직장에서 그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을 때 “그 문제에서 손을 떼라.”든가 “참고 견뎌라.”고 남편이 말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느끼는 좌절감을 공감하고 이해하여 달라는 부탁일 수도 있다.

Tannen(1990)의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남·여 간의 대화스타일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남·여 간의 언어를 인위적인 이분법으로 분리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문화적 차이 이론의 일부 주창자들은 소년, 소녀들이 청소년기에 도달하면 그들의 대화스타일은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본다. 심지어 어린시절에도

대화책략의 유사성이 차이점보다 크다고 본다. 이를테면 소녀들이 소년들과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동일한 책략을 사용하며 자기주장을 할 경우 소년들 못지않게 능숙하다는 것이다.

Freed(2003)는 이 이론에서 논의되지 않은 점은 소년, 소녀들이 주고받는 상이한 대화스타일의 기초가 되는 역학관계(power relation)라고 본다. 소녀들은 협동적이고 소년들은 경쟁적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들은 특성상 원래 그렇다는 것이다. 소년들이 경쟁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남성의 사회적 지배 현상에서 파생된 것이며 이러한 지배현상은 영속적인 것으로 본다. 반면 소녀들이 나타내는 협동심과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는 여성의 종속적인 사회적 지위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Freed는 더 나아가 여성들은 자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과 감정을 타인의 것과 조화시키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주장한다.

4.3 지배이론(Dominance Theory)

이 이론에서는 남 여 간의 대화상의 차이는 사회적 권한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가들은 소위 남성의 대화 스타일상의 특성은 거의 항상 비협조적이거나 어떤 때는 문제를 야기 시키는 특유한 말의 스타일이 있다고 지적한다(Henely & Kramarae, 1994). 이 접근법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대화시간이 더 길며 그 이전의 대화주제를 지속하기 보다는 새로운 주제를 도입하며, 사실적인 진술 이면의 함축적인 의미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지배이론에서는 남 여 간의 잘못된 전달의 원인이 문화적 차이 이론에서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될 뿐만 아니라 그 개념자체가 의문시 된다. 많은 연구가들은 여성의 대화스타일에 대한 남성의 오해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면, Eckert(2000)는 어떤 한 남자가 여자에게 성적인 제안을 할 경우 여자 쪽의 반응 “no”는 “yes”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한다. 거절하는 체하는 반응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남자들만의 집단에서 배운 대화규칙을 실천에 옮긴다고 말 할 수는 없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반응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달콤한 말을 잘 건네며 상호대화의 분위기를 잘 살려가면서 여성들의 호감을 사기도 하고 여성들의 말에 담긴 감성적, 친교적 의미에 민감하며 그 뜻을 잘 파악한다. 그러므로 남 여 간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은 단순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이 짐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

김익환

앞에서 논의한 결손이론, 차이이론, 지배이론들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남·여 간의 문화적 차이는 동등하지 않는 역학관계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이론은 남성언어에 관해서는 논의함이 없이 여성의 언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 가지 이론의 논의에서 남·여 간의 대립적인 면을 강조하고 남·여 간의 차이에 기반을 둔 언어사용 형태의 복잡한 측면은 간과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연구자들은 세 가지 유형의 이론에서 벗어나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성별이 언어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에는 남·여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성내에서의 차이점에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연령, 인종등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 의거한 남·여 간의 언어차이, 대화목적에 의거한 상호작용적 요소에 의한 차이 그리고 태도 및 사회 심리적 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이 등이 새로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 동향은 단순히 남·여 간의 언어사용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연구하기 보다는 특정한 상황맥락 하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생성되는 언어차이에 강조점을 둔다.

언어구조의 화용적 및 담화차원의 언어사용에 강조점을 두는 연구와 음운, 형태, 통사적인 변이형태에 중점을 두는 연구는 초기의 연구 유형과는 달리 몇 가지 주요 개념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두 분야의 연구가 상호영향을 미쳐 왔으며 여성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더불어 몇 가지 주제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언어사용과 성차이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에 여권신장 운동이 대두된 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성(gender)은 남·여 간의 차이라는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다룰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개념인 관계로 성차이의 개념이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사회계층간의 차이가 언어변이에 미치는 영향이 성의 차이가 미치는 것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대명사 he는 충칭적 용법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 해방론자들이 남성 우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주장해온 관계로 he or she 혹은 s/he로의 사용이 용인되었다. 그러나 통성대명사의 사용은 문어체 스타일과 형식적인 상황에 주로 사용되고 일상대화에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과 언어사용간의 연구는 특성이나 자질이 아닌 사용상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

다. 여성과 남성간의 언어사용에서 발생하는 변이를 거시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에서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의미가 내포된 여성명사의 수가 남성명사에 비하여 그 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은 불평등, 성차별, 고정관념이 영어에 항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중립적인 표현인 chairperson은 주로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은 불균형이 있음을 말해준다.

언어사용에 관한 결손이론, 차이이론, 지배이론에서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면 결손이론은 여성의 말은 남성의 말보다 열등하며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차이이론에서는 여성의 언어는 열등한 것이 아니고 단지 표현이 다르다는 것이며 지배이론은 남 여 간의 언어차이는 남성의 사회적 역할과 힘의 차이로 파생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이론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 관련되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흐름은 남 여 간의 언어 사용상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보다 특정한 상황에서 생성되는 언어의 형태 및 의미상의 차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Bodine, A. (1975). Androcentrism in prescriptive grammar: Singular they, sex-indefinite and he or she. *Language in Society*, 4, 129-146.
- Bucholtz, M. (2004). Language, gender, and sexuality. In C. Finegan & J. R. Rickford (Eds.), *Language in the US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akins, B., & Eakins, G. (1978). *Sex differences in human communi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 Eckert, P. (2000). *Linguistic variation as social practice*. Oxford: Blackwell.
- Frank, F., & Anshen, F. (1983). *Language and the sex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Freed, A. F. (2003). Reflections on language and gender research. In J. Holmes & M. Meyerhoff (Eds.), *The Handbook of Language and Gender*. Oxford: Blackwell.
- Henley, N., & Kramarae, C. (1994). Gender, power, and miscommunication. In C. Roman, S. Juhasz, & C. Miller (Eds.), *The Women and Language Debate: A Sourcebook*.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Hines, C. (1999). *Reinventing identities : The gendered self in discourse*. Oxford: Oxford

김익환

University Press.

- Holmes, J., & Meyerhoff, M. (2003). *The handbook of language and gender*. Oxford : Blackwell.
- James, D., & Clarke, S. (1993). Women, men, and interruptions: A critical review. In D. Tannen (Ed.), *Gender and conversational intera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bov, W. (1990). The intersection of sex and social class in the course of linguistic change.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2, 205-254.
- Lakoff, R. (1975). *Language and woman's place*. New York: Harper and Row.
- Mallinson, C., & Wolfram, W. (2002). Dialect accomodation in a bi-ethnic mountain enclave community: More evidence on the development of African American Vernacular English. *Language in Society*, 31, 743-775.
- Miller, C. (1994). Who says what to who? Empirical studies of language and gender. In C. Roman, S. Juhasz, & C. Miller (Eds.), *The women and language debate: A sourcebook*.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Nilsen, P. (1977). *Sexism and language*. Urbana IL: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 Pauwels, A. (2003). Linguistic sexism and feminist linguistic activism. In J. Holmes & M. Meyerhoff (Eds.), *The handbook of language and gender*. Oxford: Blackwell.
- Spender, D. (1980). *Man made language*. Boston : Routledge and Kegan Paul.
- Stanley, J. P. (1977). *Papers in language variation*. 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Tannen, D. (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New York : Ballantine.
- Tannen, D. (1993). *Gender and conversational intera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rudgill, P. (1972). Sex, covert prestige, and linguistic change in the urban British English of Norwich. *Language in Society*, 1, 179-195.
- _____(1983). *On Dialect: Social and geographical perspectiv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Wolfram, W. (1969). *A linguistic description of detroit negro speech*. Washington, D. 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김익환

계명대학교 국제학 대학

704-701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00

성차이가 언어 변이에 미치는 영향

053)580-5145

ink342@kmu.ac.kr

논문접수일자: 2007. 2. 27

게재확정일자: 2007. 3. 19